

# 유치원 아동의 한글 읽기와 자모 지식과의 관계

조중열

경남대학교, [jrcho@kyungnam.ac.kr](mailto:jrcho@kyungnam.ac.kr)

## Relations of Consonant and Vowel knowledge with Korean Hangul reading among kindergartners

Jeung-Ryeul Cho

Kyungnam University, [jrcho@kyungnam.ac.kr](mailto:jrcho@kyungnam.ac.kr)

### 요약

본 연구는 단기종단연구로 4세와 5세 아동의 읽기, 받아쓰기와 자모 지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아동들을 시기 1에서 측정한 7개월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시기 1(T1)에 측정한 단어 읽기가 시기 2(T2)의 자음 이름과 자음 소리 지식을 예측하였다. 반면에 초성탈락, 숫자명명, 단어읽기가 모음 소리지식을 예측하였다. T2의 한글읽기를 예측하는 변인은 T1 한글읽기와 자음이름이었다. 반면에, 모음소리 지식과 초성탈락은 한글단어의 받아쓰기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 한글 자음과 모음 지식의 발달양식이 다르며, 이들이 한글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역할이 다른 것을 시사한다.

유치원 시기의 글자 지식은 알파벳 문자의 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왔다 (Adams, 1990; McBride-Chang, 2004). 알파벳, 혹은 글자지식이란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아는 것과 소리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글은 알파벳 문자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으나, 자모음이 한글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음과 모음 지식의 발달 정도와 한글읽기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은 알파벳 글자이름이 유치원 시기의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을 보고하고있다 (McBride-Chang, 1999; Mutter, Hulme, Snowling, & Taylor, 1997; Pennington & Leftly, 2001; Shatil, Share & Levin, 2000). 예를 들어, Share, Jorm,

Maclean, & Matthews (191)84)는 유치원 시기에 글자이름을 아는 것이 IQ, 어휘, 가정환경들 39가지의 변인들 중에서 유치원 시기의 읽기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 것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읽기 부진아들은 글자지식에 문제를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다 (de Jong & van der Leji, 2003; Elbo, Borstrom, & Petersen, 1998; Pennington & Leftly, 2001; Snowling, Gallagher, & Frith, 2003).

글자이름 지식은 소리지식을 선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oulin, 2005, for a review; McBride-Chang, 1999; Stuart & Coltheart, 1988; Treiman, Tincoff, & Richmond-Welty, 1996; Treiman et al., 1994). 영어의 경우 글자이름이 글자소리를 포함하는 경우, 글자이름은 글자-소리 대응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마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R05-2004-000-11520-0의 지원을 받았음.

련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글자이름의 첫 소리가 글자소리를 나타낼 때(예, b, p, t)가 끝소리가 글자소리를 나타낼 때(예, m, n, l)보다 글자소리를 더 잘 배울 수 있었다. 글자소리 지식은 글자-소리 대응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읽기와 쓰기 지식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McBride-Chang, 1999; Stuart & Cothart, 1988; Vellutino & Scanlon, 1987).

음운 인식 역시 어린 아동의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90; Burgess and Lonigan, 1998; McBride-Chang, 2004; Wagner, Torgesen, & Rashotte, 1994). 한글 읽기에서도 음운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o & McBride-Chang, 2005; Kim, Gong, & Jo, 2004). 예를 들어, Cho and McBride-Chang (2005)은 음절과 음소 초성 인식능력이 한글읽기에 중요한 것을 보고하였다.

읽기에 영향을 주는 인지능력들이 글자지식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없지만, 글자지식은 음절과 각운 인식과 관련이 되며(Carroll, Snowling, Hulme, and Stevenson, 2003), 음운 인식에 의해서 잘 예측된다고 한다(Burgess & Lonigan 1998; Lonigan et al., 2000). 명명속도 역시 글자지식에 영향을 준다(de Jong & Olson, 2004).

본 연구는 7개월의 단기 종단연구로서, 유치원 4세와 5세 아동을 첫 번째로 측정한 7개월 이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의 자모음 글자지식은 어느 정도인지, 글자지식이 음운인식과 읽기의 영향을 받는지, 읽기가 자모음 지식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방법

##### 참여자 및 절차

87명의 4세와 105명의 5세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첫번 측정 시기(T1)에는 단어재인, 음운인식과 명명속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시기(T2)에는 글자지식, 음절읽기, 단어읽기와 쓰기를 측정하였다.

##### 측정 과제

**한글단어재인:** T1과 T2 모두에서 측정하였다. 모두 65개의 단어를 읽도록 하였다

**한글단어쓰기:** T2에 15개의 단어를 받아쓰기 하였다.

**한글글자지식:** T2에 19개의 자음이름, 19개의 자음소리와 19개의 모음소리를 측정하였다.

**음절읽기:** T2에 19개의 음절을 읽도록 하였다.

**음절인식:** T1에 측정하였으며, 세 음절의 단어와 비단어 16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에서 한 음절을 빼도록 하였다

**초성 음소탈락:** T1에 측정하였으며, 16개의 음절에서 첫 음소를 빼고 말하도록 하였다.

**중성 음소탈락:** T1에 측정하였으며, 16개의 음절에서 끝 음소를 빼고 말하도록 하였다.

**명명속도:** T1에 측정하였으며, 숫자와 글자로 된 자극을 빨리 읽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 결과 및 논의

모든 과제에서 5세 아동이 4세 아동보다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두 나이집단 모두에서 자음이름은 자음소리와 모음소리보다 더 수행이 높았다. 따라서 자모 소리지식의 획득이 자음이름 학습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글자 지식이 음절 읽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음이름과 자음소리는 자음의 순서와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음은 모음 순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음은 자음의 순서대로 학습되지만, 모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상관분석의 결과 거의 모든 변인들은 읽기와 쓰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글자지식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T1의 변인들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T1 한글읽기는 T2 자음이름과 소리를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음소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초성음소탈락과 글자명명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은 글자지식이 읽기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e.g., Burgess & Lonigan, 1998), 본 연구에서는 한글읽기가 한글 글자지식보다 선행함을 보

여준다. 또한 선행 연구들이 읽기가 글자지식과 음운인식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Wagner et al., 1994), 지지하는 증거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읽기가 글자 지식의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음운인식이 글자지식을 설명한다는 결과가 별로 없었는데 반해서(e.g., Burgess & Lonigan, 1998), 본 연구에서는 초성 인식이 모음소리의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글 음절에서 모음을 분리 학습시키는 능력에 초성 인식과 같은 음운분석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T1의 모든 변인들과 T2 글자지식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읽기를 회귀분석한 결과, T1읽기, 자음이름, 숫자명명이 한글 읽기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음소리, 모음소리와 음운인식을 유의하지 않았다. T1 읽기를 회귀식에서 제외하였을 때, 음절, 초성, 중성 탈락과 자음이름, 숫자명명과제가 읽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쓰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단어읽기, 초성탈락, 숫자명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음이름 지식이 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한다(e.g., Foulin, 2005; Share et al., 1984). 그러나 글자 소리가 더 읽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Lomax & McGee, 1987; Mann, Tobin, & Wilson, 1987; McBride-Chang, 1999). 본 연구에서 모음 소리지식이 받아쓰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음이 받아쓰기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Hayes, Treiman, & Kessler, 2006; Varnhagan, Boechler, Steffler, 1999; Kessler & Treiman, 2001). 그러나 T1 읽기가 회귀식에 예측변인으로 들어가지 않을때만 음운인식이 읽기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시 한번 더 검증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e.g., Perfetti, Beck, Bell, Hughes, 1987 Wagner et al., 1994).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음과 모음지식은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며 읽기와 쓰기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자음이름과 소리는 자음의 순서에 따라 학습되지만, 모음은 모음 순서와는 상관없이 학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음이름과 소리 지식은 T1의 읽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음소리 지식은 초성인식과 숫자명명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자음이름은 한글읽기에, 모음소리는 쓰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에게 한글 자모이름과 음운인식 능력에서 함께 훈련시키는 것이 한글 읽기에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Adams, M. J. (1990).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Cambridge, MA: MIT Press.

Carroll, J.M., Snowling, M.J., Hulme, C., & Stevenson, J. (2003). The development of phonological awarenes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913-923.

Cho, J.-R., & McBride-Chang, C. (2005). Correlates of Korean Hangeul acquisition among kindergartners and second graders.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9*, 3-16.

de Jong, P. F., & van der Leji, A. (2003).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manifestation of a phonological deficit in dyslexic children learning to read a regular orthograph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22-40.

Elbro, C., Borstrom, I., Petersen, D. K. (1998). Predicting dyslexia from kindergarten: The importance of distinctness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of lexical item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 36-60.

Foulin, J. N. (2005). Why is letter-name knowledge such a good predictor of

- learning to read. *Reading and Writing*, 18, 129-155.
- Hayes, H., Treiman, R., Kessler, B. (2006). Children use vowels to help them spell consona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4, 27-42.
- Lonigan, C. J., Burgess, S. R., & Anthony, J. L. (2000). Development of emergent literacy and early reading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vidence from a latent-variable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6, 596-613.
- McBride-Chang, C. (1999). The ABCs of the ABCs: The development of letter-name and letter-sound knowledge. *Merrill-Palmer Quarterly*, 45, 285-308.
- McBride-Chang, (2004).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ennington, B.F., & Leftly, D. L. (2001). Early reading development in children at family risk for dyslexia. *Child Development*, 72, 816-833.
- Share, D.L. (2004). Knowing letter names and learning letter sounds: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 213-233.
- Shatil, E., Share, D., & Levin, I. (2000). On the contribution of kindergarten writing to grade 1 literacy: A longitudinal study in Hebrew. *Applied Psycholinguistics*, 21, 1-21.
- Snowling, M. J., Gallagher, A., & Frith, U. (2003). Family risk of dyslexia is continuou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ecursors of reading skills. *Child Development*, 74, 358-373.
- Treiman, R., Tincoff, R., & Richmond-Welty, E. D. (1997). Beyond zebra: Preschoolers knowledge about letters. *Applied Psycholinguistics*, 18, 391-409.
- Treiman, R., Weatherston, S., & Berch, D. (1994). The role of letter names in children's learning of phoneme-grapheme relations. *Applied Psycholinguistics*, 15, 97-122.
- Vellutino, F. R., & Scanlon, D. M. (1987). Phonological coding,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ability: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3, 321-363.
- Wagner, R. K., & Torgesen, J. (1987). The nature of phonological processing and its causal role in the acquisition of reading skills. *Psychological Bulletin*, 101, 192-212.
- Wagner, R. K., Torgesen, J. K., Rashotte, C. A., Hecht, S. A., Barker, T. A., Burgess, S.R., et al. (1997). Changing relations between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and word-level reading as children develop from beginning to skilled readers: A 5-year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68-479.
- Whitehurst, G. J., & Lonigan, C. J. (1998). Child development and emergent literacy. *Child Development*, 69, 848-872.